

## 뺨뺨자경

(Pabbajja sutta-출가의 경, 숫따니빠따 Sn3.1)

### 출가의 경.

#### [Pabbajja sutta>(\*1)

주해(\*1)

출가의 경은 이야기 식의 설화시에 속한다.

이 경은 아난다가 설한 것이다.

세존께서 사왓티에 계실 때에 존자 아난다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리벳따 등의 위대한 제자들의 출가는 알려져 있다. 수행승들이나 재가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존의 출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내가 그것을 밝혀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는 제따바나에서 자리에 앉아 총채를 들고 수행승들에게 세존의 출가를 밝히기 위해 이 경을 읊은 것이다.

1. [아난다] “눈을 갖춘 님이 어떻게 출가(\*1)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한 끝에 그가 출가를 기뻐했는지,  
나는 그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 재가의 삶은 번잡하고 (\*2) 티끌 쌓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출가는 자유로운 공간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그가 출가했던 것입니다.

3. 출가한 뒤에 그는 신체적으로 악행을 피하고,  
언어적으로도 짓는 악행을 버리고,  
아주 청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해(\*1)

이 말은 ‘재가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승원이 건설되고 나서는 ‘승단에 들어간 자’를 뜻하게 되었다.

주해(\*2)

‘억압, 방해, 포박, 불편, 장애, 분주, 번잡’의 뜻을 갖고 있다.

4. 깨달은 님은 마가다국의 산으로 둘러싸인 라자가하로 갔습니다.  
온몸에 뛰어난 특성을 지닌(\*1) 그는 탁발하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주해(\*1) 여기서 특징은 32 상(三十二相)을 뜻한다.

브라흐마유의 경을 보라. 그 존자 고타마는 32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 1) 존자 고타마는 땅에 적응해서 안착되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자 고타마가 지닌 위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 2) 존자 고타마의 발바닥에는 천개의 살과 테와 바퀴가 달린 모든 형태가 완벽한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 3) 존자 고타마는 넓고 원만한 발뒤꿈치를 갖고 있습니다.
- 4) 존자 고타마는 길다란 손가락을 갖고 있습니다.
- 5) 존자 고타마는 부드럽고 유연한 손과 발을 갖고 있습니다.
- 6) 존자 고타마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 손발을 갖고 있습니다.
- 7) 존자 고타마는 복사뼈가 돌출된 발을 갖고 있습니다.
- 8) 존자 고타마는 사슴과 같은 장딴지를 갖고 있습니다.
- 9) 존자 고타마는 똑바로 서서 구부리지 않아도 무릎에 와 닿는 두 손을 갖고 있습니다.
- 10) 존자 고타마는 몸속에 감추어진 성기를 갖고 있습니다.
- 11) 존자 고타마는 황금빛을 띄고 있습니다.
- 12) 존자 고타마는 황금과 같은 피부를 갖고 섬세한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 13) 존자 고타마는 몸의 털이 뭉치지 않고 제각기 자라는데, 그 각각의 털은 털구멍에 하나씩 자랍니다.
- 14) 존자 고타마는 끝이 위로 향하는 몸의 털을 지니고 있는데, 위로 향하는 털은 감청색이고 검은 색깔이고 오른쪽으로 감겨 올라갑니다.
- 15) 존자 고타마는 하느님처럼 단정한 몸매를 지니고 있습니다.
- 16) 존자 고타마는 일곱 군데가 융기된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 17) 존자 고타마는 사자와 같은 윗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 18) 존자 고타마는 양 어깨 사이에 패인 곳이 없는 충만한 어깨를 지니고 있습니다.

- 19) 존자 고타마는 니그로다 나무와 같은 몸의 둘레를 갖고 있습니다. 양손을 활짝 뻗은 크기가 몸의 키와 같고, 몸의 키는 양손을 활짝 뻗은 크기와 같습니다.
- 20) 존자 고타마는 똑같이 둥근 양어깨를 지니고 있습니다.
- 21) 존자 고타마는 최상의 탁월한 맛을 느끼는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 22) 존자 고타마는 사자와 같은 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23) 존자 고타마는 마흔 개의 치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 24) 존자 고타마는 평평하고 가지런한 치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 25) 존자 고타마는 간격이 없이 고른 치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 26) 존자 고타마는 희고 빛나는 치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 27) 존자 고타마는 널따란 혀를 지니고 있습니다.
- 28) 존자 고타마는 까라비까 새의 소리처럼 청정한 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29) 존자 고타마는 깊고 푸른 눈을 지니고 있습니다.
- 30) 존자 고타마는 황소의 것과 같은 속눈썹을 지니고 있습니다.
- 31) 존자 고타마는 미간에 희고 부드러운 면과 같이 생긴 털을 지니고 있습니다.
- 32) 존자 고타마는 머리위에 육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존자 고타마에게 있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존자 고타마는 위대한 사람의 32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빔비싸라 왕은(\*1) 서서 궁전 위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뛰어난 특징을 갖춘 님을 보고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6. [빔비싸라 왕] ‘그대들은 저 사람을 보아라.  
아름답고 건장하고 청정하고 걸음걸이도 우아할 뿐 아니라 명예의 길이만큼  
앞만을 본다.’

7. 눈을 아래로 뜨고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있다.(\*2) 그는 천한 가문 출신이  
결코 아니다. 왕의 사신들이여, 그를 쫓아가라. 저 수행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주해(\*1)

빔비싸라 왕은 마가다국의 국왕이고 부처님의 수호자였다. 그는 15 세에 왕위를 계승했고,  
52 년동안 라자가하(왕사성)에서 통치했다. 부처님은 빔비싸라 왕보다 5 년 더 연장자였다.  
왕위에 오른 후 적어도 15 년 뒤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신도가 되었다.

빔비싸라의 아버지는 바띠였고 자신은 마하빠뚜마라고 불렀고 어머니는 빔비였다. 부모들 사이에 존재했던 우정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과 친구라고 하지만, 이 ‘출가의 경’에 있듯이 부처님과 빔비싸라가 처음 만난 것도 뽀다바 산에서 이루어졌으며, 부처님이 출가한 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빔비싸라 왕은 이 만남에서 부처님이 올바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먼저 라자가하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라자가하를 방문해서 빔비싸라 왕을 교화했는데, 이 때에 그는 승단에 벨루바나(죽림정사)를 지어 기증했다. 이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37 년이었다.

빔비싸라 왕의 비는 빠세나디 왕의 자매인 꼬쌀라데비였고 그녀의 아들이 아자따삿뚜였다. 그런데 빔비싸라 왕의 아들인 아자따삿뚜와 데바닷따가 공모해서 아버지인 빔비싸라와 부처님을 살해하고 왕국과 교단을 장악할 음모를 꾸몄다.

이 음모는 발각되어 빔비싸라 왕의 대신들은 그 두 사람과 음모자들을 처단하길 요구했으나 왕은 태자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방면한다. 그러나 아자따삿뚜는 부왕인 빔비싸라왕을 마침내 유폐시키는데 성공하여 그를 굶어 죽인다.

주해(\*2)

바라문의 네 가지 수행시기에서

1) 학생의 시기(梵行期), 2) 거주기(家住期), 3) 임서기(林棲期), 4) 유행기(遊行期)가 있는데, ‘생물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낮으로나 밤으로나 항상 신체에 고통이 있더라도 지상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거닐어야한다’라고 되어있다.

8. 왕의 사신들이 파견되어 그의 뒤를 따라갔다.

[왕의 사신] ‘저 수행승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는 어디에 머물러 하는 것일까?’

9. 그는 감관을 수호하여 잘 다스리고,  
올바로 알아채며,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차례로 탁발을 빌면서, 잠깐 동안에 발우를 채웠습니다.

10. 성자는 탁발을 끝내고 그 도시 밖으로 나와  
‘여기에 나의 처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뽀다바산(\*1) 으로 향했습니다.

주해(\*1)

라자가하는 다섯 산, 뽀다바, 깃자곳따, 베바라, 이시길리, 베벨라로 둘러싸여 있었다.

11. 고타마님이 처소에 도착한 것을 보자 사신들은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신은 돌아가 왕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12.[왕의 사신] ‘대왕이시여, 그 수행승은 뽀다바 산 앞쪽에 있는 굴속에  
호랑이나 황소처럼, 그리고 사자처럼 앉아있습니다.

13. 사신의 말을 듣자 전사의 왕은 화려한 수레를 타고  
뽀다바 산이 있는 곳으로 재촉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14. 갈 수 있는 곳까지 달려간 뒤 전사의 왕은 수레에서 내려  
손수 걸어서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15. 앉아서 왕은 기뻐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이와 같은 도리를 말했습니다.

16.[뽀미짜라 왕] ‘당신은 어리고 젊습니다.  
첫 싹이 트고 있는 청년입니다.  
용모의 수려함을 갖추고 귀한 왕족 태생인 것 같습니다.

17. 코끼리의 무리가 시중드는 위풍당당한 군대를 정렬하여  
당신께 선물을 드리니 받으십시오.  
물건대, 당신의 태생을 말해주십시오.’

18. [세존] ‘왕이여, 저쪽 히말라야 중턱에 한 국가가 있습니다.  
꼬쌀라(\*1)국의 주민으로(\*2) 재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19. 씨족은 ‘아뎃짜’ (\*3)라고 하고, 종족은 ‘짜끼야’ 라 합니다.  
그런 가문에서 감각적 욕망을 구하지 않고, 왕이여, 나는 출가한 것입니다.

20.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고,  
그것에서 벗어남을 안온으로 보고,  
나는 정진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이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

주해(\*1)

꼬쌀라국은 마가다의 북서쪽에서 꼬쌀라 족이 살던 나라인데 16 대국 가운데 하나였고, 부처님 당시 빠세나디 왕과 그의 아들 비두다바가 지배하는 강력한 국가였다. 싸끼야 국은 이 꼬쌀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경에서 부처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고 있다.

주해(\*2)

앞 뒤 문맥으로 보아 싸끼야 국은 꼬쌀라 국의 속국이었음이 분명하다.

주해(\*3) ‘

태양의 후예’라는 뜻이다.

-출가의 경이 끝났다. -

(뺨뺨자경-Pabbajja sutta-출가의 경, 제 3 품 큰 법문의 품, 숫따니빠따 Sn3.1, 전재성님역)

# Suttanipata

## 3. Mahāvaggo

### 3. 1 Pabbajjā suttaṃ

407. Pabbajjaṃ kittayissāmi yathā pabbaji cakkhumā,  
Yatha vīmaṃsamāno so pabbajjaṃ samarocayi.

408. Sambādhō'yaṃ gharāvāso rajassāyatanaṃ iti,  
Abbhokāso va pabbajjā iti disvāna pabbaji.

409. Pabbajitvāna kāyena pāpaṃ kammaṃ vivajjayi,  
Vacīduccaritaṃ hitvā ājīvaṃ parisodhayi.

410. Agamā rājagahaṃ buddho magadhānaṃ giribbajjaṃ,  
Piṇḍāya abhihāresi ākiṇṇavaralakkhaṇo.

411. Tamaddasā bimbisāro pāsādasmiṃ patiṭṭhito,  
Disvā lakkhaṇa sampannaṃ imamatthaṃ abhāsatha.

412. Imamaṃ bhonto nisāmetha abhirūpo brahā suci,  
Caraṇena ceva sampanno yugamannaṃ ca pekkhati.

413. Okkhittacakkhu satimā nāyaṃ nīcā kulāmiva,  
Rājadūtā vidhāvantu kuhiṃ bhikkhu gamissati.

414. Te pesitā rājadūtā piṭṭhito anubandhisuṃ,  
Kuhiṃ gamissatī bhikkhu kattha vāso bhavissati.

415. Samadānaṃ caramāno guttadvāro susaṃvuto,  
Khippaṃ pattaṃ apūresi sampajāno patissato.

416. Piṇḍacāraṃ caritvāna1 nikkhamma nagarā muni,  
Paṇḍavaṃ abhihāresi ettha vāso bhavissati.

417. Disvāna vāsūpagataṃ tato2 dūtā upāvisuṃ,  
Ekova dūto2 āgantivā rājino paṭivedayi.

418. Esa bhikkhu māhārāja paṇḍavassa purakkhato,  
Nisinno vyagghrasabhova sīhova girigabbhare.

419. Sutvāna dūtavacanaṃ bhaddayānena khattiyo,  
Taramānarūpo niyyāsī yena paṇḍavapabbato.

420. Sayānabhūmiṃ yāyitvā yānā orūyha khattiyo,  
Pattiko upasaṅkamma āsajja taṃ upāvisi.

421. Nisajja rājā sammodi kathaṃ sārāṇīyaṃ tato,  
Kathaṃ so vītisāretvā imamatthaṃ abhāsatha.

422. Yuvā ca daharo cāsi paṭhamuppatito susu,  
Vaṇṇārohena sampanno jātimā viya khattiyo.

423. Sohayanto aṅṅkaggaṃ nāgasamghapurakkhato,  
Dadāmi bhoge bhuñjassu jātiṃ vakkhāhi pucchito.

424. Ujuṃ jānapado rājā himavantassa passato,  
Dhanaviriyena sampanno kosalesu4 nicketino.

425. Ādiccā nāma gottena sākiyā nāma jātiyā,  
Tamhā kulā pabbajitomhi rāja na kāme abhipatthayaṃ.

426. Kāmesvādīnavaṃ disvā nekkhammaṃ daṭṭhu khemato,  
Padhānāya gamissāmi ettha me rajjatī5 manoti.

Pabbajjāsuttaṃ niṭṭhitam.

[\(Suttanipata, 3. Mahāvaggo, 3. 1 Pabbajjā suttaṃ\)](#)

# Suttanipāta

## III MAHĀVAGGA

### 1. Pabbajjāsutta.

405. I describe the going forth, how the wise one went forth,  
I'll tell how he reflected and announced the going forth

406. 'The household life is full of troubles, it's the sphere of defilements'.  
Going forth is like open space' seeing this I went forth.

407. Going forth in body, I refrained from doing demerit,  
Giving up misconduct in words, led a pure life.

408. The enlightened one came to the mountains of Magadha in Rājagaha  
And went out to collect alms, complete with all noble marks

409. King Bimbisāra saw him, when standing on the top most storey of his palace.  
Seeing his noble marks announced this:

410. "Good sirs, listen. This one is handsome and pure,  
Endowed with good conduct, does not look beyond a plough share.

411. Mindfully he turns his eyes down , is not of low caste,  
end royal messengers to watch where the bhikkhu is going."

412. The royal messengers followed close behind  
To learn where he was going, and where he dwelt.

413. With protected sense doors he went for alms in due order  
Quickly collected the alms food, aware and mindfulness established

414. Collecting the alms food the sage left the town  
Turned towards the Pāndava hills, that was where he lived.

415. The messengers followed him, seeing him go to his dwelling.  
One of them came back to inform the king.

416. "O! Great King, this one sits in front of the Pāndian mountains,  
Like a tiger, a bull, or even like a lion among the hills."

417. The warrior hearing the words of the messenger,  
Got into a suitable carriage and left towards the Pāndava hills.

418. He went in the carriage as far as he could go,  
And getting down from it went on foot and reached him.

419. The king sat on a side and exchanged friendly greetings with him  
And said this:

420. "You are young, in the first stage of youth  
Looks quite handsome, and by birth seems to be a warrior.

421. You will look splendid on an elephant, with an army attending  
Enjoy life I will give you wealth, tell us your birth too".

422. "The king of the state stretching from the side of the Himālayas'  
Is endowed with wealth and power, It is Kosala, my home..

423. From the lineage Sun and the Sākya clan, I became a homeless  
And have no sensual desires.

424. I saw the dangers in sensuality and appeasement in giving up  
I go to strive, my mind is attached to it."

[\(Suttanipāta . III MAHĀVAGGA . 1. Pabbajjāsutta.\)](#)